국책사업 '꼬문화중심도시' 국비 확대 절실

지자체보조사업 투입 국비 13.9% 불과…민자사업은 4.6% 뿐
최경환 의원 "실행력·근본적 제도 개선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책사업이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축소·왜곡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적 도시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계획대비 83.6%에 이르지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국비는 전체 1조3807억 원 대비 13.9%인 1915억 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조성사업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과 같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1조7259억 원) 사업,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1조4467억 원) 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민자 사업은 더 큰 문제다. 민자사업 투입률은 전체 1조7337억 원 대비 4.6%인 74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민자 사업이 3000억 원에 달하지만, 민간 투자액은 228억 원에 불과하다. 민자 사업 740억 원 중 400억 원 가까이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경환 의원

민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결성된 1호, 2호 투자조합에 이은 3호·4호 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 의원은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이 4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전당만 있지 문화 도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손도 못 댄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었던 청와대,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 해소 문제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블랙리스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이 제도화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국지사 매천 황현의 벼루·안경 문화재 지정

문방구류·생활유물 54점

우국지사 매천(梅泉) 황현(1855~1910)이 사용한 안경과 벼루 등이 문화재가 됐다. 광양 출신의 매천 황현은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선비다.

문화재청은 다독가(多讀家)였던 황현 유품을 '매천 황현 문방구류'와 '매천 황현 생활유물'로 나눠 각각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761-1호 '매천 황현 문방구류'는 벼루, 벼룻집, 벼룻돌, 필통, 연적, 지구의, 도장 등 19점으로 구성돼 있다. 벼루 중 한 점에는 "바탕이 올곧으며 아름다운 게/ 덕을 지닌 군자의 빛과 같으니/ 오래도록 진실로 좋아하리라"(貞固含章 君子之光 其壽允臧)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등록문화재 제761-2호인 '매천 황현 생활유물' 35점 가운데는 안경과 안경집이 있다. 20대에 책 1만권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심한 근시였다는 그는 20대 중반부터 안경을 썼다. 1909년

매천의 안경

천연당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과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에서도 황현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이밖에 소쿠리, 담배쌈지, 곱돌 화로 등 35점에 달하는 생활유물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시대 선비 일상 등 당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1950년대 건축물인 목포 경동성당, 전북대 구 본관·구 문리과대학·구 중앙도서관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1954년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설립한 경동성당은 목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웅장한 외관이 돋보이는 석조 건축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파주 소규모 농가서 돼지열병 발생

현행 50두 이상 농가만 등록 의무화…추가 확산 우려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에서만 하루에 2건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확진 농가 중 1곳이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11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가는 18마리 규모의 소규모 농가다. 해당 업체는 방역 조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잔반을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초 발생지이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돼 방역 총력전이 진행 중인 파주에서부터 '구멍'이 생긴 셈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무허가 농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50두 이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축산업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도 사육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다.

이는 가축질병 발생 시 시나 군·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역 활동의 대상을 가르는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농가처럼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관련 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발사체…南 '국군의날' 무력시위 반발인 듯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앞두고 대미 압박·기싸움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다음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려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남측의 군사력 증강 및 '국군의 날' 무력시위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한 압박도 담긴 다목적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실 SLBM의 발사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쏜 여러 발사체 중 위협 수준이 가장 높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단거리 미사일이나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새로 개발한 무기의 지속적인 시험 발사와도 구분된다. 잠항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 잠수함의 수준으로 볼 때 SLBM의 발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쪽을 향한 위협으로 보이지만 잠수함의 은밀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SLBM의 고도를 높이면서 사거리를 대략 450㎞ 정도로 줄여서 발사한 것도 대남 경고 시위에 무게가 실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의도와 관련 "전날 국군의날에 한국이 최신 전력들을 선보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열린 남측 국군의날 행사를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SLBM의 발사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발사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반나절도 안 돼 강행됐다는 점에서 대미 기싸움과 추후 전략 대응의 속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이춘재 "언젠가 내가 한 일 드러날 줄 알았다" 살인 14건 자백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성범죄 30여건도 털어놔…경찰, 검증작업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씨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이 2일 공식 확인했다. 이 씨는 살인 외에도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애초 화성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 사건 증거물에서 자신의 DNA가 나온 사실을 듣고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9차례 이뤄진 이 씨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이같이 자백했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발생한 10차례의 사건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을 제외하면 총 9차례로 이 씨는 이들 사건은 물론 이외에도 추가로 5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살인사건 5건의 자세한 발생 장소와 일시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사건 중 화성 일대에서 3건, 충북 청주에서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살인사건 말고도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자백한 모든 범행은 그가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고교때 이춘재

이 씨는 자발적·구체적으로 이들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포르'(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 씨가 지난주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임의로 자백하기 시작했다"며 "본인이 살인은 몇건, 강간은 몇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새롭게 검출된 DNA가 자신의 것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주 이러한 사실을 자신을 대면조사 하던 형사와 프로파일러에게 전해 듣고선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네요", "언젠가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일이 드러날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이 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투 자
7억원, 2명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델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전원주택지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계림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땅 1372㎡ 건평 269㎡ 팬션 등 적합 은행 2억7천 매도 4억3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접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 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 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 의 010-5464-4448(주인)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구비서류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작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lhmygg 참고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97 (이메일 kss2377@hanmail.net)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후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